

트랙의 볼트 VS 빙판의 물더 '100m 9초58' 무승부

올림픽 브레이크

빙속 종목 최단 500m지만 초반 가속 중요
물더 초반 100m 기록 1·2차 모두 9초58
나가시마 9초53...볼트보다 더 빨라
볼트는 200m서 후반 100m 9초27 기록도

인간은 과연 100m를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 트랙 위냐, 물 위냐, 얼음 위냐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진다.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세계기록 보유자는 세자르 시엘루 필류(27·브라질)다. 필류는 2009년 로마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49초91만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수중 최강자로 등극했다. 트랙 위에서 '번개' 우사인 볼트(28·자메이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볼트는 2009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58의 세계기록을 세웠다. 이는 5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트랙 위 스프린터 볼트, 빙판 위 스프린터 물더는 무승부?

빙판 위에선 100m의 레이스로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 없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최단거리는 500m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초반 100m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빙상 전문가들은 "단거리인 500m에선 초반에 가속도를 붙여야 결국 최종 기록이 잘 나온다. 500m에서 초반 100m 기록과 최종 기록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설명한다. 10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틀레트 아레나에서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의 금메달리스트는 미셸 물더(26·네덜란드)였다. 물더는 1차 레이스에서 34초63, 2차 레이스에서 34초67을 기록하며 합계 69초312로 우승했다.

물더의 초반 100m 기록은 1·2차 레이스에서 모두 9초58로 동일했다. 2009년 베를린세계선수권에서 볼트의 100m 기록과 같다. 만약 두 선수가 각각 빙판과 트랙에서 100m 대결을 펼친다면, 동일한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셈이다. 반면 모태범(25·대한항공)은 1차 레이스에서 9초68, 2차 레이스에서 9초63만에 100m 지점을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모태범이 9초5대에 진입하여 금빛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초반 레이스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볼트도 못 따를 스피드스케이팅 초반 100m 레이스

10일 경기에서 초반 100m만 놓고 보자면, 최강자는 종합 6위에 오른 나가시마 게이치로(32·일본)였다. 나가시마는 34초79를 기록한 1차 레이스에서 초반 100m를 9초53만에 끊었다. 종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안 스페이커스(27·네덜란드) 역시 34초72를 기록한 2차 레이스에서 초반 100m를 9초53만에 주파했다. 두 선수는 비록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트랙 위 볼트와의 대결에선 승리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미셸 물더가 11일(한국시간) 벌어진 2014소치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역주하고 있다. 물더는 출발 시부터 100m까지 세계적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기록과 똑같은 9초58에 주파했다. 소치 | 신화통신

한편 트랙 위에서 인간이 100m를 가장 빨리 달린 기록은 2009베를린세계선수권 남자200m 결승에서 볼트가 후반 100m에서 기록한 9초27이다. 당시 19초19의 세계기록을 세운 볼트는

전반 100m를 9초92에 주파한 뒤 후반 100m에서 '인간 치타'가 됐다. 이강석(29·의정부시청)은 2007년 11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오벌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한국 기록(34초20)을 세우며 은메달을 딸 당시, 초반 100m를 9초50에 끊은 적이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금메달 따자마자 달려가 키스
소치의 연인

캐나다의 샤를 아를랭(오른쪽)이 10일(한국시간) 벌어진 2014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뒤 경기를 지켜보던 연인 마리안 생젤라에게 달려가 키스하고 있다. 소치 | AP통신

쇼트트랙 아를랭, 연인 생젤라에 입맞춤 이한빈·박승희 커플도 동반 금메달 겨냥

사람은 눈썹을 타고 소치 하늘에 휘날린다. 2014년 소치에선 '올림픽 커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소치 해안리스트러 올림픽파크 크 스케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샤를 아를랭(30)은 연인 마리안 생젤라(24·이상 캐나다)에게 달려가 입맞춤을 나눴다. 둘은 아를랭이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남자 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땀 때도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연인 관계가 시작된 것은 2007년이었다. 아를랭은 당시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17세 소녀 생젤라에게 고백을 해 연인 사이가 됐다. 생젤라는 10일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만4000명의 관중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행복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생젤라는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국여자컬링대표팀의 김지선(27)과 중국남자컬링대표팀의 쉬샤오밍(29)은 부부사이다. 둘은 김지선이 중국 하얼빈으로 컬링유학을 떠난

2007년 처음 만났고, 2013년 5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체육계에선 '컬링의 안재홍-자오즈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다. 여자컬링대표팀은 알래스카도 벨런타인데이인 14일 중국과 맞붙는다. 남자쇼트트랙대표팀의 맹형 이한빈(26·성남시청)과 박승희(22·화성시청)도 연인 관계로,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크로스컨트리에서 올림픽 메달 8개를 획득하며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리안 비에르레(34) 역시 올림픽 메달 4개를 목에 건 프레드 보르 룬트베리(45·이상 노르웨이)와 동거 중이다. 동계종목 커플은 아니지만, '북미아이스하키 리그(NHL)의 영웅'인 러시아아이스하키대표팀 주장 알렉시 오베츠킨(29·워싱턴)과 '테니스 스타' 마리아 키릴렌코(27·러시아)도 밀어붙 속삭이는 사이다. 8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펀 크라머(28·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여자하키 스타 나ومی 판아스와 교제 중이다. 스포츠커플은 아니지만,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결혼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빅토르 안(29·한국명 안현수)과 우나리 씨도 이번 대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한국, 금메달 4개가 한계치?

한·중·일 아시아 3강 고전에 우려 전망

비록 대회 초반이지만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에 힘을 못 쓰고 있다.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3강인 한국, 중국, 일본이 10일(한국시간)까지 따낸 메달은 중국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얻은 은메달 1개가 전부였다. 한국과 일본은 노메달이었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 당시 한국은 금 6, 은 6, 동 4개로 전체 5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에 금메달을 따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과 모태범이 이번 대회 남자 5000m와 남자 500m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한국선수단에 아쉬움을 남겼다. 둘은 아직 1km와 1000m를 남겨두고 있지

만, 네덜란드선수들이 워낙 강해 메달을 장담하기 어렵다. 역대 최악이라는 우려를 듣고 있는 남자쇼트트랙대표팀의 메달 전선도 험난하다. 일각에선 벌써 금메달 4개 정도가 한국이 수확할 수 있는 최고치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1개도 못 따고 은 3개, 동 2개에 그쳤던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우에무라 아이코가 나선 여자모굴스키, 아사다 마오가 출전한 피겨 단체전, 가토 조지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모조리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초 금메달 5개 이상을 호기롭게 외쳤던 일본선수단이 흔들리고 있다. 밴쿠버에서 금 5, 은 2, 동 4개를 따냈던 중국도 왕멍의 부상 탓에 여자쇼트트랙의 전력 약화도 메달 전선이 불투명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121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f

청소가 필요없는 가마솥튀김기 공짜구입 찬스!

국내 최초 정제기일체형 튀김기

자동 정제와 청소 2분 OK!

- 수시 정제로 항상 신선한 식용유!
- 미세 찌꺼기는 물론 트랜스 지방까지 제거
- 유증기나 유해가스 NO!
- 등급 최소유량 (18ℓ)에 최대 동시 조리 (5kg)
- 가마솥 원리로 속까지 골고루 익혀주며, 표면은 타지 않고 수분과 영양소를 지켜주어 튀김 맛이 좋아짐
- 가스와 식용유비 월 60만원 시 매월 34만원 (56%) 절감

절감!

식용유 60%

가스 50%

식자재 납품 사업 하실분 문의 환영



(신제품) 초대형 정제기 일체형

100% 국내제작

KS-SP-6000(대형/46ℓ)
600×685×1030(mm)
LPG(1.43kg/h)
LNG(17,200kcal/h)
정제기일체형



NIN-511 (중형/18ℓ)
750×700×1050(mm)
가마솥 지름550mm, 깊이180mm
LPG(0.8kg/h), LNG(9,870kcal/h)

OK가마솥 튀김기 출시기념

선택1 튀김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 대상 : 모든 튀김기 구입희망 점포
※ 방법 : 계육, 돈가스 등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OK가마솥 튀김기 무료 설치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선택2 12개월 무이자 할부!

선택3 무담보·무보증 최장 36개월 할부

OK에너지 |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 24시간 무료상담 | **1577-7578**

www.okenergy.kr